

## 토론: 농문화와 한국수어통역

허일(한국복지대)

발제자는 농인학에서 본 농문화의 정체성 정립과 농교육의 재정립, 두 문화 간 소통 채널로서의 수어통과 수화통역사의 위상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농인들이 '듣지 못함'을 결코 장애(disability)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이라는 인식 하에서, 다만 농인은 수어를 사용하는 당대의 언어소수자일 뿐이다라는 농인 문화의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한 부분은 많은 농인과 수화통역사, 특히 농학교 교사에게 농인 문화 논의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발제자의 농문화 및 수화통역에 관한 논의는 건청인 따라잡기와 장애 극복을 강요받고 있는 농인들의 닫히고 멎힌 삶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특히 농인들은 다른 건청인들이나 난청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공부하고, 문제해결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 참여할 때, 더 잘 사회 참여할 수 있기에 [남과 다르게]를 허락하지 않고, [남과 똑같이]를 강요하거나 다양한 삶의 방식에 무지한 사회에서는 농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과거(장애)로부터 자유로운 현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란 어려운 일이고, 매일매일 악전고투 속에서 항상 지는(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또한 농인들은 자신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의 지원, 의사소통의 용이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주류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감내해야 하는 자기들만의 공동체 결성 및 가입·유지라는 선택과, 주류 사회로의 통합이 용이하지만 차별과 편견 속에 생활할 가능성이 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큰 주류 사회 속의 생활이라는 선택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농문화에 근거한 발제자의 현실 인식과 제언은 이러한 농인들의 고민과 선택을 진정한 고민과 선택일 수 있게 하는 성찰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와 많은 농인들의 바램인, 농인들과 청인들이 함께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한국 농문화의 분명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발제자의 제언과 함께 고려해 봤으면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토론을 끝맺고자 한다.

◎ Deaf culture, '농 문화'로 번역할 것인가, '농인 문화'로 번역할 것인가

한국에선 Deaf culture 또는 deaf culture를 '농 문화'로 번역하고 있다. 영어(미국 혹은 영국 모두)에서 deaf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 혹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다(COBUILD Dictionary).

① adjective

Someone who is deaf is unable to hear anything or is unable to hear very well. ⇒ She is now profoundly deaf.

The deaf are people who are deaf. ⇒ Many regular TV programs are

captioned for the deaf.

deafness (uncount noun) ⇒ Because of her deafness she was hard to make conversation with.

② adjective

If you say that someone is deaf to people's requests, arguments, or criticisms, you are criticizing them because they refuse to pay attention to them. (disapproval) ⇒ [+ to] The provincial assembly were deaf to all pleas for financial help.

③ to fall on deaf ears

④ to turn a deaf ear

deaf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라는 뜻으로 쓰인 예들에는 deaf basketball, deaf education, Deaflympics 등이 있다.

Deaf basketball is basketball played by deaf people. Sign language is used to communicate whistle blows and communication between players.

Deaf education is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a variety of hearing levels which addresses their differences and individual needs.

The Deaflympics (previously called World Games for the Deaf, and International Games for the Deaf) are an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sanctioned event at which deaf athletes compete at an elite level.

이는 영어에서 black이 '검은, 살이 검은'이라는 뜻과 '흑인의'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the black vote 흑인 표).

문제는 한국어(한자)에서 농(聾)은 '귀먹을 농'과 같이 '귀먹다, 캄캄하다, 어리석다, 무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는 농인(聾人)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농(聾)이라는 글자가 '귀머거리(청각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를 뜻하기도 하나, 귀가 먹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을 귓구멍이 막힌 것으로 보고, 청각장애인을 손상된 청각기관만으로 사람을 폄하시켜 부른 호칭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호칭하는,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어 'deaf culture'에는 '소리를 듣지 못함(청각장애)에 근거한 문화' 혹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화'라는 의미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어 '농 문화'는 '청각장애에 근거한 문화'라는 의미만 가진다. 더욱이 미국에서 소문자 d로 시작하는 deaf culture가 아니라(small deaf는 병리학적 관점에서 청력손실에 근거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잘 듣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대문자 D로 시작하는 Deaf culture의 경우, 주류사회의 청인들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와 자신들만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칭한 경우여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Large

Deaf를 한국어(한자) ‘농(聾)’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에 해당된다.

미국에서 ‘deaf/Deaf culture’는 이후의 논의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청각장애 문화’나 ‘청력손실에 근거한 문화’를 지칭하기 보다는 ‘청력손실이 있는 사람들의 문화’ 혹은 ‘주류 사회 건청인들의 문화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문화’를 지칭한다. 따라서 ‘deaf/Deaf culture’는 한국어로 ‘농 문화’로 지칭하기 보다는 ‘농인 문화’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WIKIPEDIA 백과사전에서 ‘black culture’를 검색하면 ‘Culture of Afirica’나 ‘African American culture’, ‘the culture of black communiti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ee Black people’ 항목을 보게 하는 것도 과거 우리가 특정 피부색깔(신체 부위나 상태)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문화를 폄하하여 호칭했던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Deaf culture’가 WIKIPEDIA 백과사전 표제어로 존재하기는 하나, 특정 신체 기관 손상이나 기능 저하에 따른 문화가 아니라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 문화’라는 한국어 번역보다는 ‘농인 문화’라는 표현을 통해 원 의미에 가깝게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인 문화’의 경우도 ‘small deaf culture’를 번역한 말은 될 수 있으나 ‘large Deaf culture’를 번역한 말은 될 수 없다. 한국어(한자) ‘농인(聾人)’의 의미역에는 ‘Large Deaf’에 담긴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병리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Large Deaf culture’에 적합한 한국어 용어가 제안되고 사용되기를 희망해 본다.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Main page  
Contents  
Featured content  
Current events  
Random article  
Donate to Wikipedia  
Wikipedia store

Interaction  
Help  
About Wikipedia  
Community portal  
Recent changes  
Contact page

Tools  
What links here

Article Talk

## Black culture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Black culture** may refer to:

- Culture of Africa
- African American culture
- the culture of black communiti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ee **Black people**

**See also** [edit]

- Schomburg Center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



*This disambiguation page lists articles associated with the title **Black culture**.  
If an internal link led you here, you may wish to change the link to point directly to the intended article.*

Categories: Disambiguation pages

### ◎ 누가 농인 문화(Deaf culture)의 구성원인가?

농인 문화는 청력손실(deafness)에 영향을 받고, 주된 의사소통 방법으로 수화(수어, sign languages)를 사용하는 공동체들의 사회적 신념, 행동, 예술, 문학 전통, 역

사, 가치관, 공유된 제도(관례)들의 집합을 말한다(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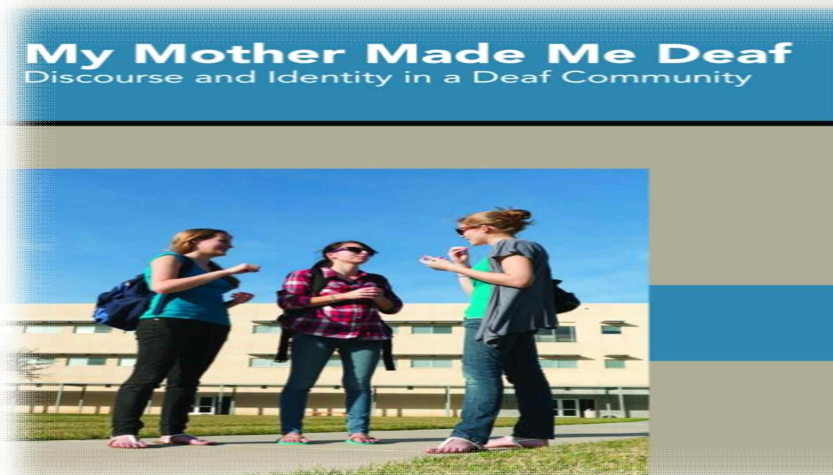
이 문화에서 문화적 명칭으로 사용될 때는, 'deaf'라는 단어는 대문자 D로 시작하는 'Deaf'를 사용하며, 'big D Deaf'라고 말하고 수화한다. 이에 반해 청각학적 조건(청력손실)에 대해 지칭할 때는 소문자를 d를 사용한다.

농인 공동체 구성원들은 청각장애(deafness)를 무능력(disability)이나 질병(disease)으로 보지 않고 인간 경험에서의 차이로 보는 경향이 있다.

농인 공동체에는 농인들의 건청인 가족들과 농인 문화 속에서의 정체성을 가진 청인 수화통역사들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모든 농인(deaf)과 난청인(hard of hearing)이 자동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자이고 수화통역사인 Anna Mindess는 “농인 공동체(Deaf community)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요인은 청력 손실(hearing loss)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와 그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다. 어떤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는 모든 사회 집단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을 농인 공동체(Deaf community)의 일원이라고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들이 농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농인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였다(Anna Mindess, 2006, Reading Between the Sign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for Sign Language Interpreter).

발제자도 지적했듯이 청각장애인은 “농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농인이 되어 가는 것”이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농인 문화(Deaf culture)’에 동의하고 있지 않으며, 농인 문화의 구성원이 될 수도 없다. 또한 청인도 농인 문화를 지지하고 농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한국의 농인 문화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문화의 성원은 청인의 규범에 따라 설정된 ‘청각장애인 집단’으로부터 탈주하여 기꺼이 농인으로 살기를 택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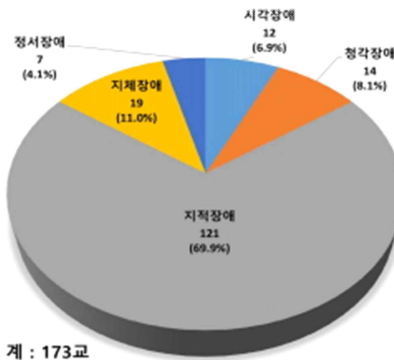
Bryan K. Eldredge, 2017, GUP

◎ 농인 문화 습득을 위한 삶의 자리

역사적으로 농인 문화는 농학생을 위한 학교(이하 농학교)와 농인들의 사회 클럽에서 습득됐고, 두 물리적 삶의 자리는 농인들을 같은 정체성으로 확인 가능한 공동체로 묶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문화적으로 농인이 되는 시점은 각 개인이 처한 삶의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 극히 소수의 농인만이 수어와 농인 문화를 농인 부모로부터 출생 시부터 습득하고, 다른 농인들은 농학교에 입학하면서 습득하고, 또 다른 농인들은 대학 입학 전 혹은 그 이후에도 수화와 농인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25,798	47,564	15,590	401	89,353	
장애	시각장애	1,307	267	439	13	2,026
	청각장애	819	691	1,828	20	3,358
	지적장애	14,379	29,490	4,166	49	48,084
	지체장애	3,858	3,895	2,916	108	10,777
	정서행동장애	229	1,361	679	-	2,269

[특수학교 장애영역별 현황]



※ 계 : 173교

장애영역	장애영역별 학교수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교 수	12	14	121	19	7	173

청각장애 학교: 서울농학교, 서울삼성학교, 서울애화학교, 한국구화학교, 부산애화학교, 대구영화학교, 인천성동학교, 메아리학교, 에바다학교, 한우리학교, 춘천계성학교, 충주성심학교, 전주선화학교, 소림학교

2017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른 청각장애학생들 중 24.3%만이 청각장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대부분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14개 청각장애학교도 대부분 중복중증 장애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농문화의 뿌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청각장애학교는 농인 문화와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병리학적 관점에서 청각장애의 완화 및 청인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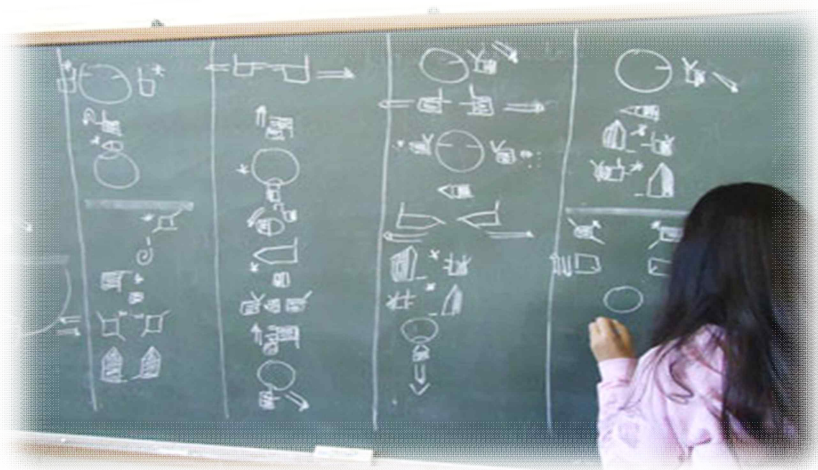
Total communication 이라는 미명 아래 뭐든 한다는 접근이 아니라 농인 문화와 한국수어(한국어 공용어)에 기반한 농학교 교육방침을 명확히 하고, 농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을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농인 문화와 한국 수어를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 다중언어 사용자 농인

한국수어는 한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대부분의 한국 농인은 한국수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용자들이다. 그럼에도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달리 열등한 언어나 사용 금지된 언어로 취급 받으며, 천시를 받아온 역사를 갖고 있다(한국 농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한글 권력이 대표적임).

그러나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과 함께 한국수어는 한국 농인의 공용어로 법적 위상을 인정 받았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용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농인에게 제공되는 법령, 공공문서, 다중이용 정보 등을 한국어와 함께 한국수어로도 접근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모든 농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와 학습자료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수어로도 제작·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모두 사용하는 농인을 위해 농학교에서도 수어로 대화를 하고, 설명하지만, 한글로 판서하고 한글 교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한글과 함께 수어문자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브라질 농학교 수업 장면

◎ 농인 문화의 특성

- 수어(Sign language)

발제자는 농문화의 체험 속에는 제1언어로 수어의 공유와 그에 따른 문화 정체성, 농인 삶의 역사적 인식, 농인 공동체의 성원으로로서 담론 생성하기, 농인다움 혹은 농인됨의 삶이 녹아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농인 문화(Deaf culture)에서 지지하는 언어는 한국수어를 포함한 수어다. 한국어나 영어와 같은 주류 사회 언어가 아니다.

그러나 수지 영어(Signed English),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 SK)은 손을 표현양식으로 사용하지만, 수어(Sign language)가 아니고, 각각 영어고 한국어다.

손을 움직여 대화를 하고, 통역을 한다고 하여 모두 수어 사용자는 아니다. 더욱이 SK 사용자들 때문에 수화 무용론이나, 수화 배운 농인들은 바보가 되고 취업도 어렵고 사회 생활이 어렵다는 신념이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상황에서는. 한국어(52만개)에 비해 수어 단어(최대 2만5천개, 실상 5천개 남짓)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수어로는 한국어 문장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SK 사용자들의 경험이 수어의 한계 및 무용론이 퍼지는 근거가 되고 있다. 수어가 아닌 한국어(수지 한국어)를 농인 문화와 농학교 의사소통 환경의 구성요소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발제자도 지적했듯이 청인 기준으로 농인이 '말장애 또는 언어장애'라면, 농인 입장에서 청인 특히 대부분의 농학교 교사와 수화통역사 들은 '수어 장애'다.

한국수어 문법은 존재하지 않고, 한국수어 단어만 배워 한국어 문장에서 한국어 단어마다 수어 단어를 대응시키면(조사와 어미는 과감히 생략) 수어 문장이 된다고 믿는 SK 사용자들은 아래와 같이 손을 움직인다. 그러나 교과서와 일상 대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복문 문형임에도 수어 장애인 농학교 교사들이나 수화통역사들은 문장의 주어를 바꾸는 오류를 흔히 범한다.

즉, V1은 S1의 서술이고, V2는 O1의 서술임에도, 주어가 바뀐 수어 문장이 된다. 아래 예의 수지 한국어 문장에서는 예쁜 주체는 꽃이 아니라 내가 되고, 늘 피곤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고, 걱정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된다.

그러나 한국수어 문장에서는 한국어 문장과 동일한 의미와 주어-동사 관계를 담고 있다. 복문의 주어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수어 장애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농학생들이 다른 언어(한국어 또는 수지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사의 수업을 듣고 똑똑해지기 어려운 이유다.

[한국어]	나는 예쁜 꽃이 좋다	S1 V2 O1 V1
[수지 한국어]	나 예쁘다 꽃 좋다	

	<u>  t</u>	<u>          </u>	<u>  t</u>	<u>  시선-&gt;a</u>
[한국수어]	꽃a	예쁘다	나	좋다

[한국어] 어머니는 늘 피곤해하시는 아버지가 걱정이다.  
S1 V2 O1 V1

[수지 한국어(SK)] 어머니 항상 피곤하다 아버지 걱정하다

(i)

시선→a 시선→>b  
[아버지a 어머니b 항상 피곤하다 걱정하다]

(ii)

시선→b 시선→a  
[어머니a 아버지b 항상 피곤하다 걱정하다]

(iii)

시선→a 시선→b  
[아버지a 어머니b 피곤하다 항상 걱정하다]

(iv) [아버지a 항상 피곤하다 모습 어머니b b보다a 걱정하다]

(v) [아버지 항상 피곤하다 때문에 어머니 걱정하다]

(vi)

시선→a  
[아버지a 피곤하다 항상 어머니b b보다a  
시선→b  
걱정이다]

(vii) [어머니 걱정하다 what(or why)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viii)

Role shift  
[어머니 걱정이다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ix)

Role shift1 Role shift2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어머니 걱정이다]

## - 가치관 및 신념

농인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지지하고 주장하는 가치관이나 신념 들은 다음과 같다 (Values and beliefs, Behavioral patterns from Deaf culture in Wikipedia).

- 농인이 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농인 문화 집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것이다. 청각장애(deafness)는 일반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는 조건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 수어의 사용은 농인 문화 정체성에 핵심이다. 따라서 농아동을 교육할 때 구화법을 사용하는 것은 농인 문화의 지속적인 존재에 위협이 된다. 농인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들은 같은 이유로 인공와우 같은 공학적인 혁신에 반대한다.
- 문화적으로 농인들의 수지 영어(영어식 수화, Signed versions of English or Signed English)나 음성 언어보다 미국수화나 영국수화 같은 자신들만의 문법 관습이 담긴 자연 수화를 사용하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구어 영어, 문어 영어, 수지 영어(Signed English)는 같은 언어(영어)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상징 체계이다.
- 농인 공동체는 농인에 대한 차별을 강하게 반대한다.
- 미국의 농인 문화는 개인주의자보다는 집단주의자인 경향이 있다.
- 문화적으로 농인들은 주의를 이끌어 내거나 수화로 대화하는 사람 사이를 지나가거나 작별할 때 사용하는 규칙이 있고, 그밖에 수화하는 환경에서 공손하게 협상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 농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일찍 출발하거나 늦게 도착할 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 농인들은 건청인 상대자보다, 보다 직접적이거나 솔직할 수 있다.
- 소개를 주고 받을 때, 농인들은 보통 공통점을 찾으려고 한다. 농인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농인들은 보통 일부 농인들을 함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결 고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결속력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 농인들은 시간 감각이 다를 수 있다. 강의 같은 큰 이벤트에는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농인이 가장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자리를 얻기 위함일 수 있다.

청각장애인 혹은 농인의 생각과 생활방식, 실천이 모두 농인 문화(Deaf culture)일 수 없다. 농인 문화다운 것이 무엇이고, 농인 문화답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논의와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수어 교육 장면에서 농인들의 지질한 면이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농문화'라고 소개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 주류사회 구성원들(청인)의 두려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한다. 친구와 약속을 정할 때, 공부를 할 때, 학원을 등록할 때,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책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과 세계관에 따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꿈꾸는 미래의 모습, 지금의 삶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한다.

농인들을 포함한 장애인들도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죽음에 직면하여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선택이 같은 땅에서 살고 있고, 같은 핏줄,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에 비장애인들과 유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성 언어와 정보의 청각화에 익숙한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낮은 선택들을 장애인들은 하곤 한다.

청인들, 특히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들(의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당혹스럽게 하는 선택들 중 하나가 미국의 농인들을 대상으로 태어나는 자녀의 청력 상태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미국 농인 부모 10 쌍 중 9쌍이 자신의 자녀가 농인이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한 조사 결과이다. 요 근래 한국에서도 농인 배우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심지어 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농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경향 또한 청각장애 전문가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농인들의 선택이다.

이러한 당혹감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그의 어머니도 청각장애인이었고, 농인을 위한 재활과 교육에 헌신했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다음과 같은 걱정이 청인 전문가들의 당혹감이 어디에 연유한 것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Reagan, 1989<sup>1)</sup>).

만약 우리가 청각장애를 가진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 내기를 희망하고,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과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완전히 다른 동기에서, 더욱이 아주 고상한 동기에서 비롯된)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Bell이 지적한 현재의 상황이란 19세기 청각장애인을 기숙제 학교에서 교육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격리, 분리, 차별이 더욱 조장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수어의 사용을 묵인한 채, 어린 청각장애 학생들을 기숙제 학교에서 양육하고, 청각장애인들에게 헌신적인 모임에서 청각장애인들끼리의 사회적 교제를 인정하고 오히려 조장하며, 청각장애인들끼리의 결혼(벨은 intermarriage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결혼이라는 뜻 외에도 근친결혼, 혈족결혼, 근친상간이라는 뜻이 있다)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Bell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주류 쪽인 건청인들을 의식할 수 있게 가르쳐져야만 하고 다른 청각장애인들과는 가능한 한 최

1) Reagan, T. (1989). Nineteenth-century conceptions of deafnes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educational practice. *Educational Theory*, 39(1), 39-46.

소로 만나야 한다고 믿었다. 이 믿음은 특히 교실에서 지켜지기를 바랐는데, Bell은 건청인 교사만을 교실에서 보기를 원했다.

청각장애를 가진 새로운 인종의 출현에 대한 Bell의 공포는 그의 생각들 중 작은 부분이 아니었다. 그에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 이는 그의 청각장애에 관한 개념과 미국사회가 어떻게 청각장애인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Bell은 가능하기만 했다면 청각장애인들끼리의 결혼을 금지하는 억압적인 수단을 입법화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1883년에 Bell은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악을 억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무지막지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실지로는 그러한 생각을 포기했다(인도주의적인 이유나 도덕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신 Bell은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간의 결혼을 격려하려는 노력을 지지했다. Bell이 청각장애인끼리 모이는 것을 허락하고 격려함으로써 청각장애인끼리의 결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현실을 비난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들 중 하나는 미국의 많은 주의 인종개량법에서 법률화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인즉슨,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들이 청각장애를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도록 불임(단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Reagan, 1989).

청각장애라는 새로운 인종의 출현에 관한 Bell의 연구논문이 쓰여졌던 그 당시 Baltimore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교회의 목사에 의하면 청각장애인들의 부모들 사이에서 그들의 가족 주치의들이 그들에게 몰상식하고 잔인한 수술(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불임시키는 수술)을 권한다는 소식이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갔다고 한다.

그러한 불임수술들이 많이 행해졌으며, 많은 청각장애를 가진 성인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가혹하게 상처를 입었다. 청각장애인들만이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사람들(socially inadequate classes)이 그런 식으로 취급되었다.

Bell은 청각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장애를 부정(denial)을 통해 극복하도록 격려하는데 그의 삶을 바쳤던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는 수어를 부정했고, 건청인들과 청각장애인들 사이의 중대한 문화적 차이를 부정했으며 청각장애인들끼리의 결혼을 부정했다.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교육할 때 청각장애를 가진 교사들을 채용하는 것의 가치를 부정했다. 또 기숙제 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것을 부정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적어도 청각장애인들이 보기에는 그가 청각장애인을 그 자체로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마지막 평가는 Bell의 부인인 Mabel이 내린 것이다. 그녀는 "Bell, 당신이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관련 사업은 당신에게 인간에 관

한 사업이 아닙니다. 당신은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당신의 관심은 그들의 청각장애에 있지, 인간인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Bell에게 있어서 청각장애인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듣고 말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살도록 그들을 그 세계에 맞추는 것이었다. 그는 그이외의 어떤 목적도 사실상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Bell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인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 건청인 세계로 흡수시키는 것이었다. Bell은 수어(sign language)가 구어(spoken language) 발달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고 따라서 청각장애인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어의 계속적인 사용은 영어라는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방해가 되며,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며 읽을 수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Bell에게는 수어 사용을 지지하는 주장들이 모두 오히려 수어의 사용을 반대하는 증거들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들 속에는 영어가 '외국어'가 되고,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미국에서 이방인(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농인 문화와 한국수어의 주체는 분명 한국 농인이지만, 한국 농인 문화가 발전하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청인, 특히 농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수화통역사 등에 대한 기나긴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